

예수, 마리아, 요셉의 성 가정 축일

화답송 : 시편 128(127), 1-2. 3. 4-5 (© 1)

손상오 신부 작곡

Fine

행 복 하 여 라 주 님 을 경 외 하 는 사 람 그 분 의 길 을 걷 는 모 든 사 람

1. 행복하여라, 주님을 경외하는 사 람 그 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 람
 2.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 내 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 고
 3. 보라,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 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 리 라

D.C. al Fine

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 리 니 너는 행복하여라, 너는 복을 받으 리 라
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 들 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 구 나
 너는 한 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 리 라